

# 文化院 圖書室의 存立 意義

—公共圖書館과 文化院의 關係를 밝히면서—

許 讚 宗

韓國文化院聯合會事務局長

〈編輯者 註〉 本文은 前號(6月號)에 掲載된 張一世의 “公共圖書館 設置現況과 問題點”이란 題下의 「文化院에 대한 考察」에 대하여 文化院의 立場을 밝힌 筆者의 글을 그대로 실는 것이다.

## (어찌하여 存立하게 되었는가)

그 나라의 文化는 大學과 圖書館이 說明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大學은 알차나 圖書館은 아직 크게 비어 있다.

이러한 실정에 文化院이 널리 圖書館을 운영하고 있다. 각 市 郡 地域에서 任意로 設立된 文化團體(法人)들인 文化院이 스스로의 힘으로써 圖書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文化院은 鄉土文化의 啓發을 目的으로 設立된 것이기 때문에 落後된 그 地方의 文化 暢達을 위해 急先務인 圖書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실로 自然스러운 趨勢였고, 거기서 發達하여 圖書館의 규모로 나아가게 된 것 또한 當然한 歸結이었다. 사실 地方의 경우는 더군다나 圖書에 대한 基礎的 說明이나 常識的 案內라도 할 수 있는 마땅한 者가 없는 편이다. 실로 文化院(長) 스스로 외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지가 文化院은 施設을 갖추어 하나의 經營者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부득이 本職 아닌 司書 代理勤務까지 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文化院의 歷史는 25년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自然發生的 世情順應의 文化院의 圖書活動은 마침내 “經驗에 의한 經營者”로서 經驗을 통해 닦은 “準司書(?)”로서 하나의 專門 領域을 形成하게 까지 된 것이다.

그간 文化院은 스스로의 빈약한 財力때문에 圖書室을 運營하는데 있어 실로 苦衷이 많다. 혹자는 그간 文化院이 政府로부터 많은 圖書費 補助金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나 사실은 다르다. 補助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다.

## (公共圖書館과의 관계는 어떠 한가)

한편 國力の 伸張과 더불어 地方에도 점차 公共圖書

室이 設立되어 갔다. 그러나 經營能力이 부족하고 司書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現實的 難點에 부딪치게 되었다. 여기서 地方 自治團體들은 앞서 있는 그 地方의 文化院을 생각하게 된 것 또한 自然스러운 趨勢였다. 다시 말해 文化院으로 하여금 公共圖書館의 委託 管理者가 되어줄 것을 바라게 된 것이다. 적잖은 경우에 있어 文化院들은 이를 수락 하였다. 여기서 文化院과 公共圖書館과의 關係設定이 재래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혹자의 見解처럼 文化院이 곧 公共圖書館인 것은 결코 아니며, 文化院 圖書室이 곧 公共圖書館인 것도 아니다. 公共圖書館은 어디까지나 地方自治團體의 圖書館인 것이고 文化院 圖書室은 文化院 自體의 圖書館으로서 圖書館法上的 “特殊圖書館”의 하나인 것이다.

文化院이 公共圖書館을 맡아 管理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사실은 상술한 바와 같으나 그 關係는 委託管理 일 뿐이며, 文化院 자체의 圖書室과는 姊妹關係에 있을 뿐 經營體制(經理)마저 엄연히 區分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허약한 公共圖書館의 실정에 비추어 文化院은 자체의 圖書室을 移讓寄附한 意思가 없는 오늘이며, 地方(鄉土)의 圖書館 發展을 진심으로 바라는 立場에서 自治團體 보다 약한 自體財力을 갖고서 文化院이 公共圖書館의 移讓(永久委託 내지 法的 移讓節次)를 바라는 것이 또한 결코 아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文化院과 公共圖書館의 關係요 內容距離인 것이다.

그리고 거듭 강조해 두거니와, 文化院이 圖書室을 運營하는 것은 단지 鄉土文化 啓發事業을 至標로 하는 마당에서 우리 社會에 圖書館이 발달하여 文化院에 의한 努力이 필요 없게 될 때에는 文化院 圖書室은 藏書를 圖書館에 옮겨줄 것이며 鬻이 역시 並立을 바랄 性格의 것도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文化院 圖書室의 並立意義는 圖書館이 없거나 微弱한 鄉土에 圖書館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先驅者的 役割을 다하는 것을 만족하는 스스로의 限界를 始源的으로 設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엄연한 論理와 性格을 外面, 외국 하면서 文化院 圖書室의 存在에 대해 마치 圖書館 專

家들의 눈위에 가시라도 된다는 느낌이 든다면 실로  
寒心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이 時點에 必要한 事項)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文化院의 圖書室 並立의 性格  
과 背景이 엄연한 이상, 곧 文化院에 의한 圖書室 活  
動의 必要性이 存在한다고 하는 우리 社會의 興件이  
머무르는 동안에 있어서야 文化院 圖書室의 存立意義  
는 조금인들 廢損될 수는 없고 沮止당할 수가 없는 것  
이 분명하다. 그리고 公共圖書室의 委託管理者로서의

(立地條件的) 意義 또한 嚴存할 것이다.

요컨대 자체의 特殊圖書室으로서건 公共圖書室의 委  
託管理者로서건 存立意義는 現實的으로 嚴存한다. 다  
만 이곳에도 司書職이 派遣·補完될 수 있고 資源이  
되받침될 수 있는 걸만이 실로 아쉬운 實情이며, 그렇  
게 됨으로써 모든 地方에 알찬 公共圖書室이 確立되는  
날이 到來되도록 促進하게 될 것을 전심으로 바란다.  
이런 뜻에서 文化院의 圖書室 並設의 意義와 公共圖書  
室 委託管理의 役割에 대한 일반의 올바른 評價와 이갈  
은 文化院의 努力에 대한 支援의 關心을 斯界에, 특히  
專門家들에게 바라마지 않는다.

## 「公共圖書室 設置現況과 問題點」題下의 論稿에 대한 解明

「도협월보」 1974年 6月號에 寄稿한 本人의 論稿中  
「文化院에 대한 考察」은 그 目的이 우리 나라에서의 文  
化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現況을 總括的으로 概觀한  
것임은 「第4項 公共圖書室發展을 위한 方案」을 보아도  
明白한 일이나, 同 考察에 실린 內容이, 筆者가 수집  
한 資料의 不足과 現況把握의 不正確으로 因하여 文化  
院 및 同 聯合會에 대하여, 本意아닌 累를 끼치게 되  
었다면 이를, 매우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미 本人이 發表한 여러 論稿에서 主張해 온 바와  
같이 文化事業은 活潑하면 할수록, 그리고 文化機關은  
많으면 많을 수록 國家發展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항상 強調해 왔다.

本人이 公共圖書室 문제를 論함에 있어 公共圖書室  
과 더불어 文化院을 學論한 理由도 바로 여기에 起因  
하는 것으로서 文化院의 積極的인 活動을 바라 마지  
않는데서 緣由한 것이다.

本人의 우둔한 筆材로 말미암아 本意아니게 文化院  
側에게 誤解를 살만한 表現이 있었다면 이것은 오로지  
本人의 表現不足에서 온 것이고, 참 뜻으로서의 公共  
圖書室과 더불어 文化院이 地域社會 住民을 위한 文化  
機關으로서 훌륭한 機能을 가져 올 것을 念願하는 衷  
情에서 苦言한 것임을 諒解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張一世)

## 「公共圖書室 設置現況과 問題點」中 文化院에 관한 部分에 대한 解明書

「도협월보」 1974年 6月號에 掲載된 張 一世氏의 論  
稿「公共圖書室 設置現況과 問題點」中 「文化院에 대  
한 考察」은 우리 나라의 公共圖書室을 中心으로 한 우  
리 나라의 全般的인 文化活動의 促進을 위한 方案을 강  
구하기 위하여, 既存 活動 機關을 概觀하기 위하여 考  
察된 것으로서, 筆者나 本會의 本意가 우리 나라의 文  
化發展을 促進하기 위한 것이 目的이며, 他機關을 비  
방하거나 活動內容을 故意로 歪曲하고자 하는 뜻은 秋  
毫도 없음은 그 論稿의 結論으로 맺어진 第4項 「公共  
圖書室發展을 위한 方案」이나 또는 「맺는 말」을 보아

도 明白하다고 믿는 바이다.

萬의 一이라도 本意아니게 同 論稿의 內容에 의하여  
文化院聯合會에 대하여 曲解를 惹起하거나 또는 聯合  
會의 威信을 損傷한 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本會  
에서는 甚심한 遺憾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앞으로는  
뜻과 目的을 같이하는 貴聯合會와 本協會가 이 일을  
契期로 하여 加一層 우리나라 文化事業의 暢達을 위하  
여 邁進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發行人)